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이준호	학번	201811096
이메일	jl2459@georgetown.edu		

대학원명	McCourt School / Master of Policy Management	미국
기 간	2019.1~12월	[귀국일: 2019년12월2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9년 12월 일

신 청 인 : 이 준 호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기후는 인터넷에서 워싱턴 DC 지역의 기후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나,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자면 한국과 기온이나 기후는 비슷하다. 한국이 추워질 즈음에 춥고 한국이 더울 때쯤 덥다고 보면 된다. 그렇지만 한국보다 조금 더 건조하고 자외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선글라스와 자외선차단제가 도움이 많이 된다. 여기서도 구할 수 있지만 연수 초기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구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공기가 깨끗하고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아서 인지 봄부터 늦가을까지 햇볕이 좋은 날은 한국보다 많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수영장이 딸려 있고 미국 사람들은 선댄을 매우 좋아한다. 구릿빛 피부를 원한다면 어학실력도 늘릴 겸 자주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DC의 겨울은 기온상으로는 한국정도의 추위라고 보면 되고 삼한사온 현상이 나타나 는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많이 낮을 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으로 통학한다면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조지타운 대학교는 워싱턴 DC의 북서쪽 끝 지역의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데, DC가 원래 차가 많기도 하고 학교가 오래 되었기도 해서 학교에서도 셔틀버스 이용을 추천한다. 주차요금도 비싼 편이다. 학생이라고 싸게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집에 차가 있는 학생이라도 통학은 대부분 지하철, 버스, 셔틀버스, 자전거 등을 이용한다. 학교도 언덕에 있고 넓은 편이라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기도 쉽다. 계단이나 경사진 구간이 꽤 있으니 신발도 겨울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겨울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학교에서 휴교 메시지가 온다. 한국 기준으로 얼마 안 되는 눈이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들이라 1~2월에 3~4번 정도 휴교 메시지가 왔었다. 심지어 큰 눈이 예상되지만 해도 휴교 메시지가 온 적이 있다. 한국 기준으로 볼 때 DC가 너무 춥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올해 초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미국에 북극의 한파가 내려왔었다고 한다. 시카고나 일리노이 지역은 -30~-40도를 기록하면서 공항이 마비되고 동사자가 꽤 많이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혹시 여행을 하게 된다면 지역별 날씨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DC가 한창 더운 5월초에 더 남쪽인 샌디에고는 서늘했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 데스벨리는 40도를 훌쩍 넘었고 옐로우 스톤에서는 함박 눈이 내렸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조지타운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교수들도 정부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거나 학자로서 상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원한다면 DC에 소재한 많은 유명 국제기구에서 인턴 경험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나 다른 전공의 과목을 들을 수도 있다. 특히 DC에 인근

에 위치한 펜타곤 등 다양한 정부기관 및 국회, 백악관 등에서 공부하러 오기 때문에 토론이 활발하고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충분히 교육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만큼 우리를 외국인으로 보기 보다는 그냥 다른 인종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토론 연습을 위한 모임에 참가하거나 writing center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외국인 전공 교수들은 내가 이상한 문장을 써서 페이퍼를 제출해도 문법적 내용을 지적하지는 않는다. 내용에서 보완할 점에 대해 말해줄 뿐이다. 그러나 Writing center의 교수는 세세한 부분도 알려주고 고쳐준다. 그리고 그 분들은 단순한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유명대학의 교수 출신들이어서 내용에 대한 토론도 가능하다. 나이가 많아서 부담이 적은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페이퍼 및 캡스톤 작성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에 각 3과목씩 신청한다. 선택 과목은 봄과 가을에 1과목씩 2과목 뿐이다.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점은 전공 필수 과목에 미시경제학과 research methods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과목은 KDI에서도 전공 필수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 오면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시 배워야 한다. KDI의 정책학 과정이 NASPAA 인증도 받았다고 하는데 맥코트 스쿨에 설명해서 학생들이 중복되는 과목을 듣지 않아도 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원론 과목의 경우에는 KDI의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지타운에는 한국에서 배우기 어려운 매우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우리의 선택과목은 단지 2개이다. 이 점은 KDI에서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 수업은 대부분 일주일에 1번 수업이고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이다. 수업시간 보다도 읽어 가야할 자료가 많은 편이라서 힘들 수 있다.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싶다면 학교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수업을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골프, 수영, 테니스, 헬스, 댄스 등 다양한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 너무 잘 배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레크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에 참가한다면 친구도 사귄다 수 있고 적당히 운동도 배울 수 있다. 레크레이션 과목은 학점이나 과목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조지타운은 대학원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집을 구해야 한다. 내가 살던 지역은 버지니아 로슬린역 근처이다. DC는 미국 기준으로 매우 작은 도심 지역이라 집값이 비싼 편이다. 싼 지역은 집이 낡았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위험지역일 가능성이 있다. 위험 지역은 웬만하면 피하길 바란다. 미국의 위험지역은 한국과 차원이 달라서 뉴스를 통해 총기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로슬린은 DC보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하고 조용한 편이다. 집을 구하는 것이

초반에 가장 큰 문제인데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잘 알아보더라도, 계약은 실제로 와서 직접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비교해 본 다음에 할 것을 추천한다. 이 지역에 다른 외국학생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페어팩스 지역도 추천한다.

미국에서 음식을 사 먹기는 비싼 편이다. 한국은 저렴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많은 편이지만, 미국은 인건비가 비싼 만큼 저렴한 식당은 별로 없다. 저렴한 가격을 보고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 6% (버지니아 기준)와 팁 15~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초반에 좀 헛갈릴 수 있는데 커피, 햄버거와 같이 본인이 가져다 먹는 경우에는 팁을 안내도 된다. 물론 원한다면 내도 된다. 그리고 음식이 너무 저렴하다면 위생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 또한 매일 먹는다면 한국사람 기준에서 미국음식이 너무 짜거나 너무 달게 느껴질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다. 과일이나 고기, 계란, 야채 등 대부분 한국보다 저렴하다. 미국 생산 와인, 맥주도 매우 저렴하다. 따라서 간단하게 집에서 해 먹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 학생들도 간단히 먹을 것을 싸와서 먹으며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맥코트 스쿨에는 전자렌지와 커피포트,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미국은 넓어서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학교 공부가 힘들더라도 시간을 쪼개어 알차게 여기저기를 여행하는 것이 좋다. 여름방학기간에 렌터카로 미국 동부지역을 여행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가족들과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는 꼭 한번 가볼 것을 추천한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한국과 해외에서 2개의 학위를 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 여러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고 유익한 경험이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범한 대학원보다는 훨씬 더 추천하고 싶은 과정이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행사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은데 직접 해봐도 좋을 것 같다. 향후 미국에서 여러가지 계약서들을 혼자 처리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생활 경험이 없다면 해볼 필요가 있다. 초반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학교 오리엔테이션이 있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해외여행을 갔다가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I-20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입국을 위해서는 학교측의 싸인이 있어야 한다. 주의사항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살았던 버지니아는 DC와 인접해 있어 포토맥 강만 건너면 바로 조지타운 대학에 도착할 수 있다. 로슬린역을 기준으로 걸어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셔틀버스가 로슬린역에 10~20분 마다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집 구하기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빈도 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는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도 추천한다. 학교 근처 언덕 구간에서 운동 부족을 절감하게 되지만 해볼 만하다. 특히 DC와 인근지역에는 Capital Bikeshare가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 따릉이 정도 되겠다. 나는 저렴한 1년 패스를 끊어서 이용했었는데, 최근에 조지타운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패스를 구입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다. 이용을 원한다면 Capital Bikeshare 사이트에서 일반 패스가 아닌 학생할인 패스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뉴욕을 갈 때 이용하는 버스 중에서 Vamoose는 조지타운 학생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Supershuttle도 조지타운 학생 할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버지니아는 한국과 운전면허 협정이 되어 있어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별도 면허시험이 필요 없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 학교 공부도 해야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된다. 운동에 관심이 있다면 골프나 테니스도 한국보다 매우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고 싶을 것이다. 해안가에서 서핑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된다. 멋진 산이 많아서 트래킹하기에도 좋다. 아이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하기는 어렵다. 원하는 것을 정해서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즐겁고 보람된 조지타운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